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 현장 점검

- 경북 예천군 구제역 발생(9.2.) 관련 경상북도·예천군 가축방역 추진 상황 현장 점검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9월 4일(금) 오전, 경상북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경북 예천군 소재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양성축이 확인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북 예천 발생 현황('26.9.2. 확진) : 총 2건 발생(소 농장 2호)

경상북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선별적 가축 처분, 긴급 백신 접종, 예천군·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역학농장 등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 조치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하였다.

* 인접 6시군 : 경북(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단양)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는 소(牛) 사육이 많아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짐없는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관리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둔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의 발생 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도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민간 수의사 등 관련 단체와도 적극 협업할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이병용 (044-201-2532)